오륙도 칼럼

유엔창설 69주년을 맞아

조 봉 휘

10월 24일은 UN 창설 69주년이 되는 날이다. 유엔은 지난 1945년 '전쟁방지와 평화유지 그리고 국제적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창설되어 현재는 193개국의 회원국을 가진 국제기구로 국제사회에 가장 큰 주역으로 자리 잡았다.

UN 헌장에 언급된 것처럼 유엔은 참혹한 전쟁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그동안 강대국의 정치역학에만 의존했던 기존의 세계질서를 집단안보라는 새로운 도구를 이용해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는 접근방법으로 국제사회에 등장했다. 이런 유엔이 창설된 후 집단안보라는 도구를 가지고 첫 번째로 등장한 무대가 바로 한국전쟁이었다. 따라서 현재까지도 유엔과 한국은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전쟁은 전통적 한국사회를 근대사회로 변화시킨 변곡점이었다. 이런 가운데 부산은 1950년 8월 18일부터 1953년 8월15일까지 약 3년에 걸쳐 임시수도로서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었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도시였다. 전쟁 중에 부산은 유엔과 세계 각국의 막대한 양의 원조물자와 군부대 주둔으로 전쟁 특수를 누리면서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였다.

전쟁 중 부산시내에는 90여 개의 유엔군 부대들이 주둔하고 있었다. 특히 부경대학(옛 수산대학)에는 미 8군 후방지휘소와 통신부대 의무부대, 그리고 감만 문현 우암동에도 통신, 보급 및 수송부대들이 주둔해 있어 남구는 병참기지로서 도시의 기능과 메커니즘이 격변하는 새로운 기회의 땅이었다. 유엔군의 지원 병력과 군수물자는 주로 부산항과 수영비행장(현 벡스코 일대)을 통해 들어왔다.

1951년 유해 옮기려 유엔묘지 조성

이로 인해 부산항은 하역시설과 장비가 크게 확충되었고 사람들이 넘쳤던 것이다. 반면 많은 피난민의 유입으로 주거 및 식수난 등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였지만 아무튼 부산은 전쟁을 통해 새로운 도시로 다시 탄생하였고, 피난민들에게는 안식처이고, 이산가족에게는 상봉의 장소이었고, 모두에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따뜻한 도시였다.

전쟁과 유엔이 부산에 남긴 유산 중 하나가 대연동에 위치한 재한유엔기념공원이다. 유엔기념공원은 전쟁 중 산화한 유엔장병들을 모시기 위해 현 위치에 1951년에 조성됐다. 1950년 10월 25일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너 한국전쟁에 참전하면서 전쟁의 양상은 장기화되기 시작했고, 유엔군 전사자들이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1951년 1월 유엔군 사령부는 유엔군 묘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대상지를 현 위치인 남구 대연동으로 선정하였다. 이곳은 당시 행정구역상 경남 동래군의 당곡리였다. 당곡리 일대는 해안에 인접한 갯벌지대로 남천만을 끼고 용소해수욕장과 사분포라는 포구가 형성되어 있어서 배의 접안이 가능한 지역이었다. 이에 개성, 인천, 대구, 대전, 밀양, 마산 등지에 흩어져 있던 유엔군 유해를 한 지역으로 이장하면서 배를 이용해 본국으로 이송하기 가장 편리한 현재의 위치를 선정한 것이다.

세계가 주목하는 남구 되길

현재 유엔기념공원에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국가 중 미국을 비롯한 11개 나라의 전사자 2300여 분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다. 이처럼 유엔기념공원에는 이름도 모르는 동방의 작은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전투에 참가해 존귀한 목숨을 바친 젊은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세계 유일의 성소이다.

그러나 전쟁 후 이 공간은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잊혀졌고 한때 도시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기도 했다.

부산은 한국전쟁을 통해서 세계적인 항구도시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부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해운대, 부산영화제, 광안대교, 부산항, 자갈치, 산복도로 등 몇 가지 정도이고, 정작 평화의 상징인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이 있으면서도 평화에 대한 이미지는 잘 떠오르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도심 속에 자리 잡은 소중한 자산인 유엔기념공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평화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 본래의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잊지 않으면서 많은 시민과 국민들이 스스로 찾는 공간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그래야 숭고한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으면서 소중한 문화자산인 평화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유엔의 날을 맞아 남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평화의 도시가 되길 기대한다.

동명대 국제문화학부 군사학과 교수

선용의 1000자 지혜 (125)

실패를 줄이는 법

무슨 일이든 정도(正道)가 있다. 그 정도를 지키면서 함께 각고의 노력을 했을 때 성공이라는 달콤한 결과를 잡을 수 있지, 정도를 벗어나 노력하지 않으면 쓰디 쓴 실패의 잔을 마시기 마련이다. 어떤 분야의 달인을 보면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되거나 쉽게 된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한 끝에 비로소 힘들게 얻은 영광스런 이름이다.

한각(韓角)이란 조각의 명인이 있었다. 하루는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다. "스승님, 나무로 사람을 조각하고 싶은 데 가장 신경써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얼굴이지." "얼굴이라면 그 중에서도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얼굴의 중앙에 있는 코를 먼저 만드는데, 주의할 점은 코를 처음에는 크게 만든다는 것이다. 코를 크게 만들어 놓으면 혹시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조금씩 깎아내면서 마음에 들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지."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눈이야." "눈을 조각할 때도 코와 만찬가지로 하면 됩니까?" 한각은 고개를 저었다. "눈은 다르다. 눈을 조각할 때는 처음에는 좀 작게 만드는 것이 좋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눈을 작게 만들어 놓으면 혹시 마음에 들지 않아 고치고 싶을 때 조금씩 깎아내면서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말이다. "그럼 입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입은 눈과 코를 보면서 크지도 작지도 않게 얼굴의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칼 한번 잘못 써 망쳐 놓았을 때, 다 만들어 놓고 보니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정말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까운 자료는 말할 것 없고 귀중한 시간과 노력이 허사가 되니 이 얼마나 큰 손실인가. 한각의 가르침은 조각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실패를 줄이면서 성공률을 높이는 이 가르침은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물론 기업에서도 유용한 방법이 아닐까.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주위의 시정사항이나 미담사례를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5, FAX 607-4374, 1225honey@korea.kr

심야 마을버스 귀가서비스 환영

부산남구신문을 통해서 지난 9월 20일부터 심야 마을버스 안심귀가 서비스가 남구를 포함한 부산 전역에서 실시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행정이란 시민들과의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한다.

세심하고 별 것 아닌듯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한 사람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고, 또한 공권력 바깥의 음지를 자연스럽게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 생활을 면밀하게 반영하는 정책들이 여러 방면에서 개발되었으면 한다.

이우화(대연 1동)

강력접착제 차량 단속 '섬뜩'

아파트를 다니다 보면 '외부차량 불법주차시 강력접착제로 단속' 이라는 현수막을 보게 된다.

상당수의 아파트가 주차공간이 부족해 그런 것이라 이해하지만 아찔하고 섬뜩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남의 차량에 강력접착제를 붙인다는 것은 너무 몰인정하고 비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정렬(우암동)

기차에서 만난 고마운 인연

서울역에서 부산행 열차를 탔는데 정방향과 역방향이 마주보는 좌석뿐이었다. 앞 좌석에 인상 좋은 중년 여성분이 앉으면서 "안녕하세요?"하며 인사를 했다. 학교 선생님 같은 분위기다. 과자도 건네주고 책도 보라고 챙겨 주었다.

부산에 가까워올 때 쯤 걱정스러운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아들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버렸다. 차창 밖은 어두워지고, 서울에서 이사 온지 2개월이 되었어도 자식들이 태워 다녀 어디서 택시를 타는지도 모르겠다. 팔순 노인이 되고 보니 빨리 판단이 서지 않아 몹시 불안했다. 그때 앞자리 여성이 가족하고 통화를 하고 있어 핸드폰을 빌려볼까 했는데 그의 배터리도 거의 나가 버렸다. 그래서 망설이다가 사정을 이야기 했더니 해운대가 집이라며 가는 길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구세주를 만나는 기분이었다. 여성의 남편이 차를 가지고 왔는데 흔쾌히 같이 가자며 댁이 어디냐고 물었다. "남구 용당동 대광아파트입니다"하니 내비게이션을 찍어 우리 아파트까지 태워다 주었다.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잊을 수가 없었다. 다음에 알아보니 남부교육지원청 중등부 장학사 하복미 선생님이었다. 이 시대에 훌륭한 교육자의 모습에서 아름다운 심성을 보아 행복한 하루였다.

김옥남(용당동)

■ 독자의 편지 '칭찬합니다'

감만1동 쉼터의 놀라운 변화

감만사회복지관 바로 앞 쉼터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이름 모를 주민 한 명을 알리기 위해 펜을 들었다. 나는 매일 손자를 감만어린이집에 보내기 전에 어린이집 앞 쉼터에서 잠시 머물곤 한다. 그 쉼터는 바닥에 잡초가 우거지고 여기저기 쓰레기와 오물이 나뒹굴어 항상 지저분했다. 근처 마땅히 쉴 곳이 없어 벤치에 앉아있다 오지만 늘 마음이 편치 않은 곳이었다.

그런데 한 달 전 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말없이 쉼터의 잡초를 뽑고 청소를 하는 것을 보았다. 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쓰레기와 잡초가 없어지는가 싶더니 쉼터 구석구석에 꽃들이 심어지기 시작했다. 가을꽃이 심어진 화단이 쉼터 주변으로 조성돼 이제는 글자 그대로 누구나 앉아 쉬고 싶은 쉼터가 되었다. 쉼터 구석구석 그 남성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그는 매일 아침 8시 쯤 출근하듯 이곳에 와서 꽃나무를 심고 물도 주고 꽃이 쓰러지지 않게 작은 대나무로 받침대도 세웠다. 어느날 그에게 "아저씨, 참 좋은 일을 하시는데 남구신문에라도 한번 나와야 겠습니다"라고 하니 그는 겸손해하게 "쉼터가 깨끗하면 안 좋습니까?" 하면서 묵묵히 일을 계속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세상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는구나는 생각이 들었다.

박우언(감만1동)

■ 기자수첩

대한민국 군대, 아직은 건강하다

내 아들은 군인이다. 그것도 곧 최전방 GOP에 투입될, 군대 간 지 6개월 된, 부모 가슴 졸이는 '군발이'다. 아침, 너석이 10박11일의 긴 휴가를 마치고 복귀했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빨래더미와 일거리만 남았다. 휴가 나온 그날부터 아들은 국방부 시계를 입대 전으로 돌려놨다. 속세에 나오자마자, 복장이며 정신 상태까지 완벽하게 민간인으로 지냈다. 휴가 내내 딱 한 번의 식사 자리 그리고 두어 번 얼굴을 보여준 게 전부였다. 그만큼 그는 바빴다.

때 맞춰 자신이 다녔던 대학 축제기간과 겹치는 휴가가 아들을 더욱 미치게 했나보다. 만남과 술자리를 맘껏 즐기는 듯싶었다. 만약 있었다면, 얼마나 더 바빴을까? 그러고는 복귀 전날 너석의 말은 "아! 복귀하기 싫다. 내년 7월까지 세상 구경 못 할 텐데"였다. 복귀하면 바로 GOP로 올라간단다. 그리고 내년 7월에나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 말을 들으니 내심 안쓰럽기도 하고 어미로서 걱정이 앞섰다. 사실 휴가 내내 아들에게 불만이 있었다. 부모는 그렇다쳐도 그 긴 휴가 동안 너석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친지 어른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모습과 한정된 시간을 오롯이 친구에게 쏟아 붓는 아들이 참으로 야속했다. 군인이라는 면죄부로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잔소리를 눌렀다. 결국 너석은 친지들에게 인사도 못하고 속세의 '환락'을 마치고 떠났다.

복귀 준비를 하는 그를 보는 심정은 한석봉 어미 같다고 해야 할까. 내 아들이 좀 더 성장해서 나오겠거니 하는 위안으로 불안, 근심, 애잔함을 달랬다. 그리고 솔직히 군대 간 6개월, 그의 부재는 나에게는 또 다른 자유시간이었다. 앞으로 1년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게 내심 좋기도 했다.

떠나는 그도 담담하게 잘 하고 오겠다는 자신감과 여유를 보였다. 대견스러웠다. 아마도 내 아들의 모습이 이 땅의 모든 아들들의 모습 일게다. 난 그가 잘 해내리라 믿는다. 내 아들 뿐 아니라 우리 아들 모두가 건강하다고 믿는다. 근래 군대 내 사건 사고로 세상이 어지럽지만 불안해하지 않기로 했다.

아들은 말했다. 군대를 또 다른 사회체계라는 걸 인정하고 적응하면, 오히려 좋은 경험과 기회가 되는 곳이라고. 또 따뜻한 사람들이 많고 힘든 훈련을 같이 할 때 생기는 끈끈한 동기애는 속세에선 배우기 힘든, 군대는 인생 학교라는 너무도 건강한 발언을 했다. 군대가 알게 모르게 아들을 남자로 성장시켰나보다. 저처럼 평범한 젊은이라면, 무탈하게 전역해 집으로 돌아올거라고 엄마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그는 한마디 더 얻었다. 오히려 요즘, 군과 관련된 사건들로 군대 내는 모든 게 조심스럽고 혼란스럽다면서, 그 때문에 좋고 건강한 기강마저 무너지고 있어 안타까워했다.

군인의 어머니들이여! 아들을 믿고 애달파 하지 말자. 그들은 결코 나약하지 않다. 당당히 대한민국을, 아니 세상을 지켜낼 것이다.

최현숙 기자

■ 특별기고

건강보험의 글로벌화로 창조경제 실현해야

얼마전 CNN이 선정한 '한국이 세계 제일인 것'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다. 이중에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었는데, 인터넷 사용률(국민의 82.7%), 스마트폰 사용률(80%), 대학진학율 등은 긍정적이었고 폭탄주 문화 같은 음주율, 평균 노동시간 등은 부정적으로 보도된 것으로 기억된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자국의 건강보험을 개혁하면서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을 본받아야 할 제도라고 극찬한 바가 있듯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1년간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 53개국이 우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과정을 수료했다고 한다. 이들 국가는 세계에서 최단 기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한 우리의 건강보험제도의 노하우를 배워 자국에 적용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우리는 건강보험제도 수출을 통해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는 것이다. 무형의 건강보험제도 수출에 따른 효과는 막대하다. 제도에 필요한 IT, 의료산업, 의료인력 수출이 뒤따라 연관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 문화에만 한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 건강보험은 내부를 들여다보면 반드시 손질해야 하는 결함을 갖고 있다. 현재 우리 건강보험은 크게 자영업자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체에 소속된 직장가입자로 이원화되어 있고 보험료도 지역과 직장으로 나눠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 적용 당시 10%에 불과한 소득파악률의 한계로 부득이 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했던 보험료 부과 체계가 소득 파악률이 90% 이상인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퇴직 후 소득이 없음에도 건강보험료가 직장을 다닐 때보다 더 많아지는 모순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점은 동일 보험집단(우리나라의 경우 전국민)에는 동일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해야 바로 잡을 수 있다.

건강보험의 불합리한 부분을 고쳐 부끄럽지 않는 상품을 내놓을 때 우리 제도의 우수성을 전세계가 공감하고 수출길도 활짝 열릴 것이다. 이런 노력이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김영희(동명대 간호학과 교수)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의무자** : 각층 바닥면적(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 시설물의 소유자
－동일시설물을 공동 또는 분할 소유시 각각 소유지분에 따라 부과
○**납부기간** : 2014. 10. 16~10. 31
○**납부장소** : 시중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 인터넷 전자 납부안내 : http : //etax.busan.go.kr
※ ARS(유료전화) 납부안내 : 1544-1414
－가상계좌이체, 신용카드(삼성, 현대, 롯데, 신한, 비씨) 납부 가능

부산광역시 남구(교통행정과) ☎607-4575

산따라 물따라

산행을 떠나요

〈2014. 11.〉

구분	산악회	산행일자(요일)	산행장소	연락처
대연동	대삼산악회	11/9(일)	경남 밀양 천황산	010-9979-0702
	대오산우회	11/9(일)	경북 상주 갑장산	010-2559-2086
	청암산악회	11/12(수)	충남 청양 칠갑산	010-6778-3192
	안천산악회	11/19(수)	경북 구미 금오산	010-4655-4370
용호동	오륙도민주산악회	11/1(토)	대구 달성 비슬산	051-621-6444
	용사산악회	11/23(일)	경남 산청 수양산	010-3586-6161
	용호산악회	11/23(일)	전남 고흥 팔영산	010-2593-0361
	제일산악회	11/2(일)	충북 영동 월류봉	011-594-4192
	여명산악회	11/1(토)~11/2(일)	서해안 여행	010-3554-4392
	환경산악회	11/2(일)	전남 장성 백암산	010-3575-3448
	용신산악회	11/9(일)	전북 정읍 내장산	011-488-3307
	다산산악회	11/2(일)	대구 동구 파계봉	010-3870-2660
	금강산악회	11/2(일)	충북 보은군 구병산	010-3865-9051
	21C산악회	11/9(일)	강원도 평창 백두대간 선자령	010-6266-8525
	부산산오름회	11/2(일)	전남 영암군 월출산	010-7223-2277
	청산산악회	11/2(일)	충북 제천 월악산 영봉	010-8008-2087
	한마음산악회	11월, 12월	일정없음	010-9324-3424
	한울타리산악회	11/9(일)	경북 안동 천지갑산	010-7650-1984
	여남산악회	11/9(일)	전남 고흥 거금도 적대봉	010-4553-6615
	용마산악회	11/9(일)	개별통지	010-4433-8809
용당동	문화산악회	11/23(일)	창녕 화왕산	016-564-8882
	녹색산악회	11/23(일)	전남 장흥 수인산	010-3560-4528
감만동	글로벌산악회	11/16(일)	진주 보잠산(경남 수목원 관람)	010-8287-1192
	즐거운산악회	11/23(일)	충남 청양 칠갑산	010-2397-1133
우암동	우남산악회	11/16(일)	전남 해남 달마산	010-7520-6666
	우일산악회	11/2(일)	충북 보은 속리산	010-3557-2847
	한솔산악회	11/9(일)	산청 왕산 필봉	010-8524-8224
	우암산악회	11/23(일)	전북 정읍 내장산	010-6578-0488
문현동	문사산악회	11/9(일)	전남 담양 추월산	051-631-9001
	문현산악회	11/2(일)	무주 적상산	011-9544-3434
		11/8(토)	울릉도 독도	
	문현2산악회	11/9(일)	전남 백암산	010-3178-3065
	문현산우회	11/16(일)	전남 완도	010-6706-1255
	원뿌리산악회	11/16(일)	전북 정읍 내장산	010-4564-7769

※ 산행일정은 산악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남구청에서는 납세자 여러분이 찾아가지 않고 있는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환급대상자** : 지방세 환급금 미수령자 ○**기간** : 2014. 10. 1.~상시
○**확인 및 신청방법** : 전화(1544-1414), 인터넷(Cyber지방세청 등)
• 자동 ARS, 전화 한통이면 OK ☎1544-1414
• 인터넷
◇부산시사이버지방세청 (http : //etax.busan.go.kr)→지방세환급
◇위택스(http : //www.wetax.go.kr)→지방세환급금찾기
• 전화 및 인터넷 신청으로 본인계좌신청시 체납세액이 있으면 제외하고 입금됩니다.
• 직접수령 : 남구청 세무2과 607-4234 방문(본인신분증 지참)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주간 김 성 한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37-7373 편집실(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mg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매품〉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